

발표일 : 2014년 4월 30일



5월은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체적으로 물결이 낮게 일겠으나, 동해남부, 남해 및 제주도 해상은 약간 높겠음.

해양기상

- 상순에는 이동성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서해중부 해상의 물결은 약간 높겠으나, 중순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동해남부와 제주도 해상을 제외한 전 해상에서 대체적으로 낮겠음. 하순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서해와 동해중부를 제외한 전 해상에서 약간 높겠음.

※ 물결이 낮음(1.0m 미만), 약간 높음(1.0~2.0m 미만), 높음(2.0~3.0m 미만), 매우 높음(3.0m 이상)

- 5월 15일 땅 이후에, 서해의 인천에서 5월 17일에 911 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며, 남해의 완도에서 5월 18일에 390 cm를 보이겠음. 동해의 포항은 5월 29일 삭 이후 30일날 15시경에 48 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겠음.

해양안전

-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므로 충돌 예방을 위한 전방 견시 철저, 기적 등 무중항법 준수 및 조기 피항
- 줄음운항 방지를 위한 정기적 휴식 후 조업 또는 항해(조타실 당직자 항시 배치)
- 1인 조업선은 선단선 출어, 상호인지 가능한 해역에서 조업 권고
- 행락철로 인명피해 개연성이 높은 여객선, 유·도선 안전운항 철저
- 본격적 성어기로 안전조업 철저(조업등 항해등 점등 철저)

어업기상

- 5월의 연안 수온은 동해, 서해가 1~2℃ 내외의 고온현상을 보이겠고, 남해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됨.
- 예상 수온 : 동해 12~18℃, 남해 : 15~18℃, 서해 : 14~20℃

자료협조 : 해양경찰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해황

### 해황

#### 5월의 해상 예보



▶ 최근 5년간('09~'13년) 파고 관측값 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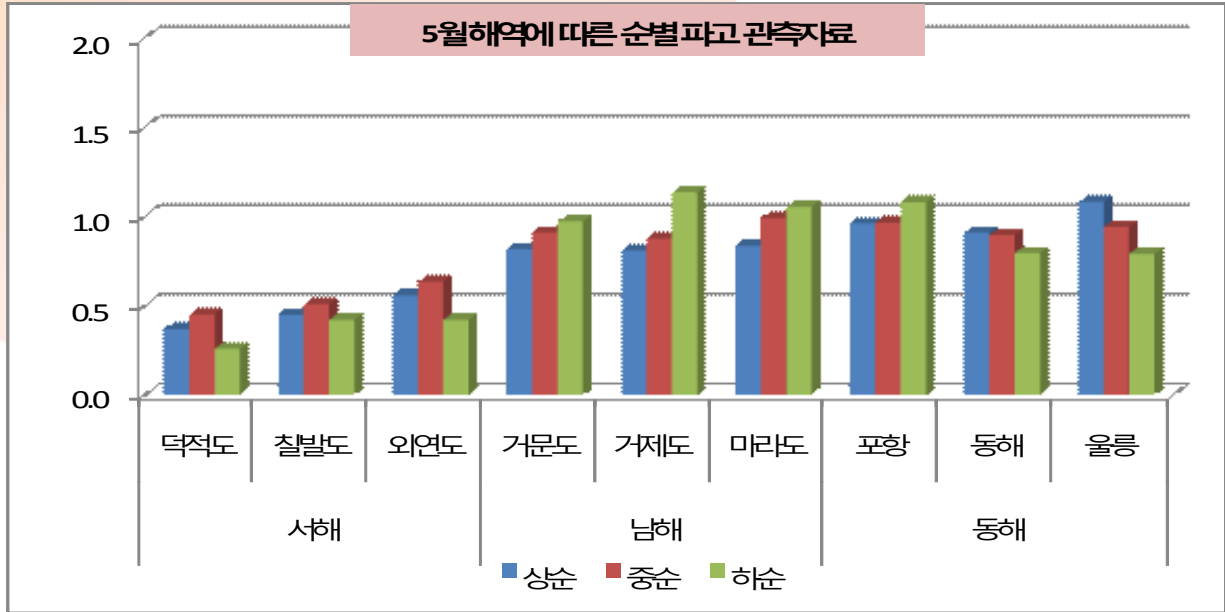


그림 1. 최근 5년간('09-'13) 순별 파고 관측값

최근 5년간('09~'13년) 해역에 따른 5월 순별 해양기상부이의 파고관측 자료를 살펴 보면, 상순과 하순에는 동해, 남해 서해 순으로 높았으며, 중순에는 남해가 가장 높았고 서해가 가장 낮았음. 또한 전 해역에서 중순과 하순이 비교적 높았으며, 상순에는 가장 낮은 값을 기록함(그림1).

※ 울릉도 부이 자료는 2012년도 신설로 인하여 해당년도부터 추가함.

### ▶ 최근 5년간 및 작년 풍랑특보일수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5월의 풍랑특보 발표 일수를 보면 상순에서 하순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보임. 해역별로는 남해동부면바다, 남해동부앞바다 및 동해남부면바다에서 빈도가 높은 편임.

작년(2013년) 5월의 풍랑특보일수와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5월의 풍랑특보일수 평균값을 비교하면, 최근 5년에 비해 2013년도 5월 상순과 중순에는 큰 폭 감소하였고 하순에는 비슷함(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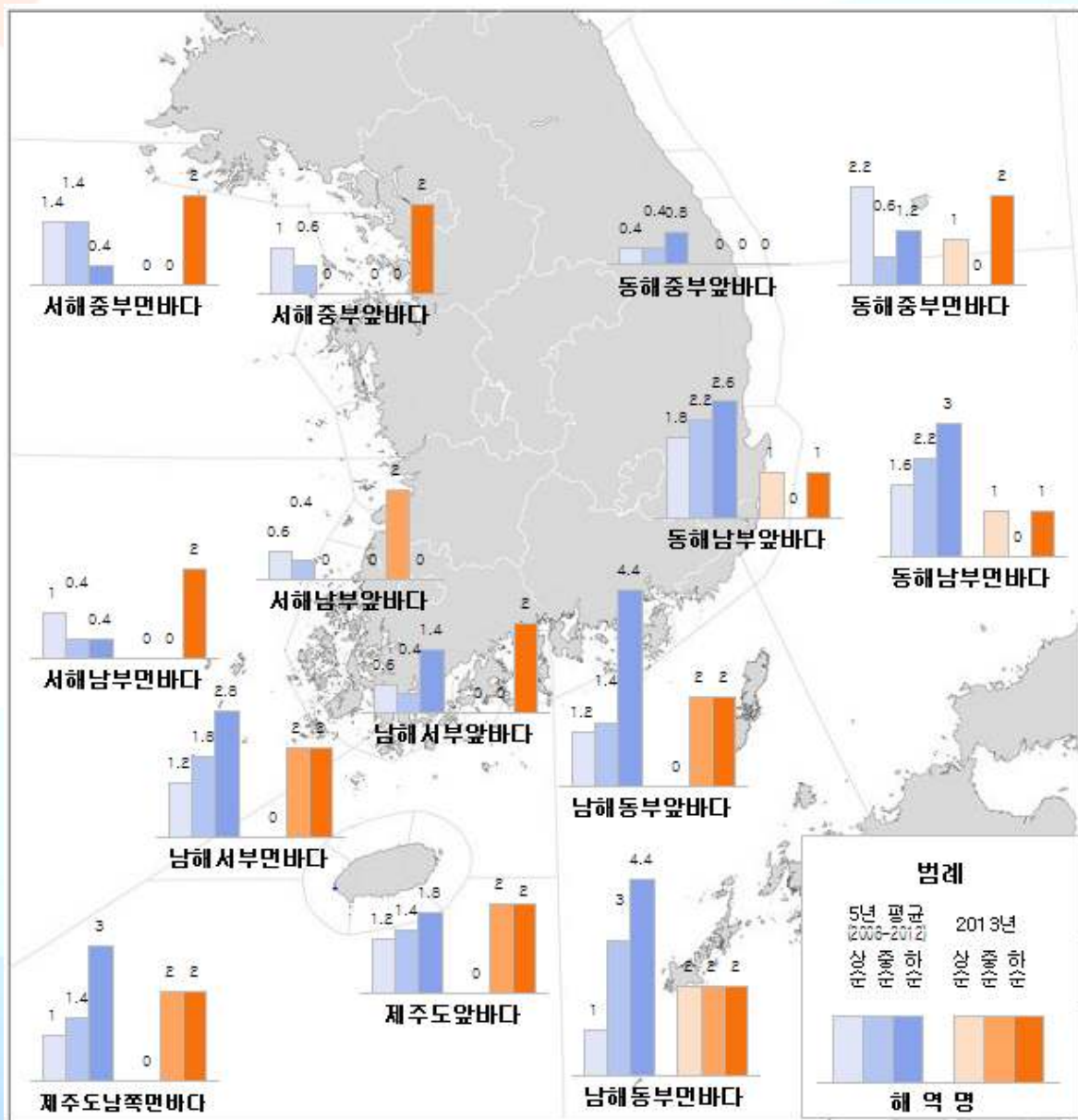


그림 2. 최근 5년(2008-2012)과 2013년 5월의 풍랑특보일수(상순, 중순, 하순)

### ▶ 지난해(2013년) 5월의 해황

2013년 5월에는 전해상의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남서풍, 서풍 계열의 바람이 나타남. 바람은 해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전 해상에서 0.5~4.9m/s의 바람이 약 53.1%, 5~9.9m/s의 바람이 약 29.9%분포를 보였고, 10m/s 이상의 바람은 약 6.6% 정도를 보였으며, 14m/s 이상의 바람은 약 1.1% 분포를 보였음.

앞바다에서도 0.5~4.9m/s의 바람이 약 62.2%, 5~9.9m/s의 바람이 약 29.8% 분포를 보였음.

2013년 5월의 해역별 바람 특성은 다음과 같다.

| 해역   |       | 주풍계   | 풍속 분포(%) |         |           |       | 비고 |
|------|-------|-------|----------|---------|-----------|-------|----|
| 광역   | 국지    |       | 0.5~4.9  | 5.0~9.9 | 10.0~13.9 | 14.0≤ |    |
| 서해중부 | 앞바다   | 남서~남동 | 71.8     | 21.1    | 2.0       | 0.3   |    |
|      | 먼바다   | 남     | 73.9     | 18.4    | 1.9       | -     |    |
| 서해남부 | 앞바다   | 남서~남  | 78.3     | 17.1    | 1.9       | 0.3   |    |
|      | 먼바다   | 북서, 동 | 53.4     | 34.2    | 8.2       | 2.3   |    |
| 남해서부 | 앞바다   | -     | -        | -       | -         | -     |    |
|      | 먼바다   | 서, 북동 | 44.9     | 41.4    | 7.6       | 3.5   |    |
| 제주도  | 앞바다   | 서     | 65.3     | 23.1    | 9.8       | 0.1   |    |
|      | 남쪽먼바다 | -     | 52.6     | 35.5    | 8.6       | 1.3   |    |
| 남해동부 | 앞바다   | 남서    | 52.4     | 45.7    | 1.1       | -     |    |
|      | 먼바다   | 남서    | 51.0     | 35.6    | 8.6       | 0.3   |    |
| 동해남부 | 앞바다   | 남서    | 43.1     | 41.9    | 12.1      | 0.7   |    |
|      | 먼바다   | 남서~남  | 0        | 0       | 0         | -     |    |
| 동해중부 | 먼바다   | 남     | 50.3     | 44.5    | 4         | -     |    |
| 전해상  |       |       | 53.1     | 29.9    | 5.5       | 1.1   |    |

※ 해역별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등표기상관측장비(앞바다)와 해양기상부이(먼바다)의 관측 자료임.

작년(2013년) 5월의 파고분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해상은 1m 이하의 파고가 약 66.9%로 대체적으로 파고가 낮았음. 서해상은 1m 이하의 파고가 약 80.6%로 다른 해역에 비해 낮은 파고의 비율이 높았음. 반면, 높은 파고의 비율이 다른 해역에 비해 높은 해역은 동해안으로 1~3m의 파고의 비율이 43.1%로 나타남.

| 해역구분  | 파고분포(m) |         |         |         |      | 비고 |
|-------|---------|---------|---------|---------|------|----|
|       | <1.0    | 1.0~1.9 | 2.0~2.9 | 3.0~4.9 | 5.0≤ |    |
| 서해상   | 80.63   | 14.73   | 2.77    | 1.23    | 0.63 |    |
| 남해상   | 62.95   | 28.55   | 7.95    | 0.55    | 0.00 |    |
| 제주도해상 | 63.20   | 27.40   | 7.90    | 1.50    | 0.00 |    |
| 동해상   | 56.90   | 38.43   | 4.70    | 0.00    | 0.00 |    |
| 전해상   | 66.86   | 27.11   | 5.13    | 0.79    | 0.24 |    |

## ▶ 조석과 조류

### ▣ 조석이란?

달과 해의 인력작용으로 해면은 하루에 두 번 상승과 하강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를 조석(tide)이라고 함. 달의 기조력(tide-generating force)은 해의 그것보다 2배 이상 이므로 주로 달의 기조력이 조석에 영향을 줌. 달 이외에도 태양의 위치, 수심, 해안의 지형, 해수의 운동 등의 영향도 받으므로 실제로 관측되는 조석은 장소와 계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해면이 최고 높이에 이르렀을 때를 밀물(만조, 고조라고도 함. high tide)이라 하고, 그 때의 해면의 높이를 고수위(high water)라고 함. 그리고 해면이 최저 높이에 이르렀을 때를 썰물(간조, 저조라고도 함. low tide)이라 하고, 그 때의 해면의 높이를 저수위(low water)라고 함.

해, 달과 지구가 일직선상에 놓이는 삭(음력 초하루)과 망(음력 보름)에는 달과 해의 기조력이 합쳐지므로 조석은 커지는데 이를 사리(대조, spring tide)라고 함.

● 사리때 달, 태양, 지구의 모습



● 조금때 달, 태양, 지구의 모습



그림 3. 사리와 조금 때의 달, 태양, 지구의 모습

그러나 개개의 해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연조건의 영향으로 조석의 크기나 모양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선박의 출입항, 적화문제, 항만 축조공사의 방식, 연안 어업이나 양식 등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석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함.

### ▣ 조차가 큰 지역

고수위와 저수위의 차이를 조차라고 하는데, 해저의 경사나 깊이, 만이나 해협의 길이나 형상, 대양인가 또는 입구가 좁은 내해인가에 따라 조차는 큰 차이를 보임.

일반적으로 입구가 좁은 내해에서는 작으며, 반대로 입구가 넓고 안쪽을 향하여 극히 좁아지는 만이나 하구부, 특히 그 곳이 얇은 경우에는 조차가 큼. 세계 최대의 조차는 캐나다 동남부의 Fundy만으로 그 만의 남측에 있는 Minas만은 13.6m의 대조차를 보임. 우리나라의 서해안도 세계적으로 조차가 큰 곳(약 8m)에 속함.

■ 조류

조석에 의한 해면의 승강에 동반되어 일어나는 해수의 수평방향의 운동을 조류(tidal current)라고 함.

조류가 정지할 때를 정조(slack water)라고 함. 해면이 상승하는 동안 즉, 간조에서 만조까지는 창조(flood)라고 하며 이때의 조류를 창조류(flood current)라고 하며, 만조에서 간조까지를 낙조(ebb)라고 하며 이때의 조류를 낙조류(ebb current)라고 함.

■ 조류의 세기

일반적으로 만 내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만조(high tide), 간조(low tide) 때에 정조(slack water)가 되고 만조와 간조 사이에 유속은 최대가 됨(standing wave, 그림4). 그러나 만 입구에서는 만조와 간조 사이에 정조가 일어남(progressive wave, 그림5). 이번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해역의 경우, 그림5의 progressive wave와 같은 특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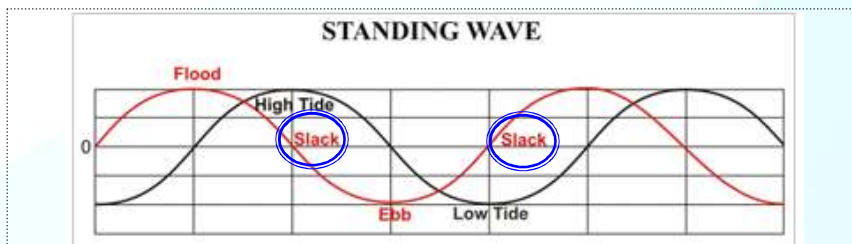


그림 4. 만 내에서 조석과 조류의 세기



그림 5. 만 입구에서 조석과 조류의 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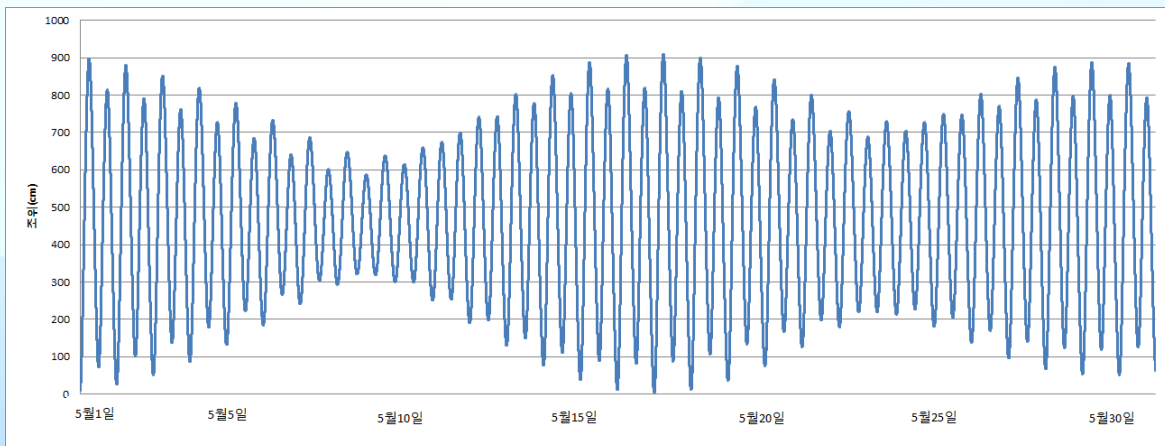
※ 출처: 미국 해양대기청 (NOAA)

유속이 빠른 해협에서는 해양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선박은 정조 때를 기다리거나 조류의 흐름이 선박의 통행에 방해되는 시기를 피하는 것이 안전함.

## ▶ 2014년 5월 조석 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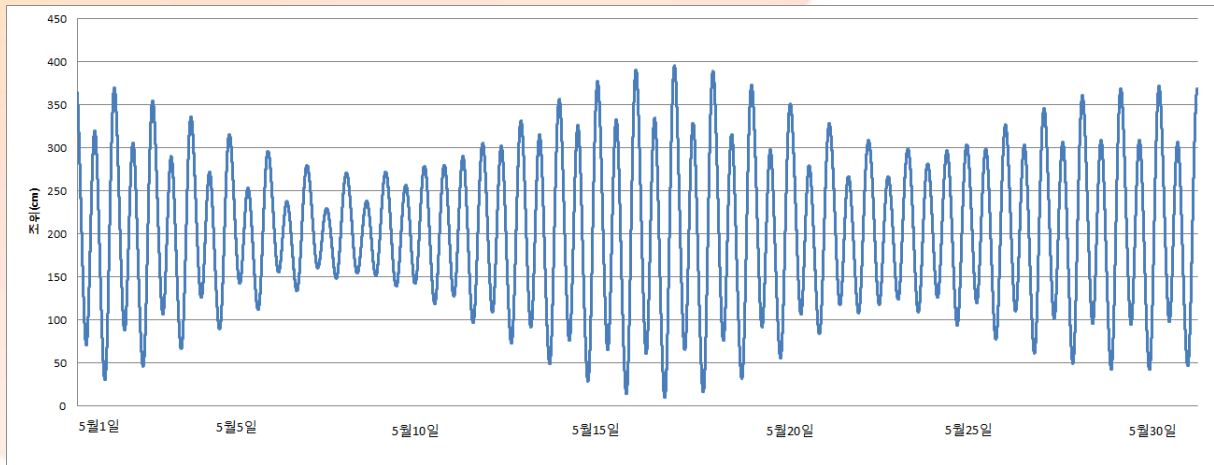
5월 15일 망 이후에, 서해의 인천에서 5월 17일에 911 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며, 남해의 완도에서 5월 18일에 390 cm를 보이겠음. 동해의 포항은 5월 29일 삭 이후 30일날 15시경에 48 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겠음.

| 해역 | 관측소   | 대조기(망 5.15) |            | 대조기(삭 5.29) |            |
|----|-------|-------------|------------|-------------|------------|
|    |       | 고극조위(cm)    | 발생시각       | 고극조위(cm)    | 발생시각       |
| 서해 | 인 천   | 911         | 5.17 06:26 | 887         | 5.29 05:09 |
|    | 안 흥   | 696         | 5.17 05:23 | 667         | 5.30 04:48 |
|    | 군산외항  | 720         | 5.17 04:42 | 698         | 5.30 04:07 |
|    | 목 포   | 486         | 5.17 03:57 | 473         | 5.29 02:34 |
| 남해 | 완 도   | 390         | 5.18 00:16 | 372         | 5.29 22:51 |
|    | 마 산   | 191         | 5.15 21:35 | 185         | 5.29 21:27 |
|    | 부 산   | 135         | 5.15 21:04 | 131         | 5.29 21:00 |
|    | 제 주   | 291         | 5.17 00:09 | 273         | 5.29 23:43 |
| 동해 | 포 항   | 47          | 5.18 17:14 | 48          | 5.30 15:35 |
|    | 울 릅 도 | 41          | 5.16 14:53 | 47          | 5.30 14:40 |
|    | 속 초   | 40          | 5.17 16:11 | 41          | 5.30 15:2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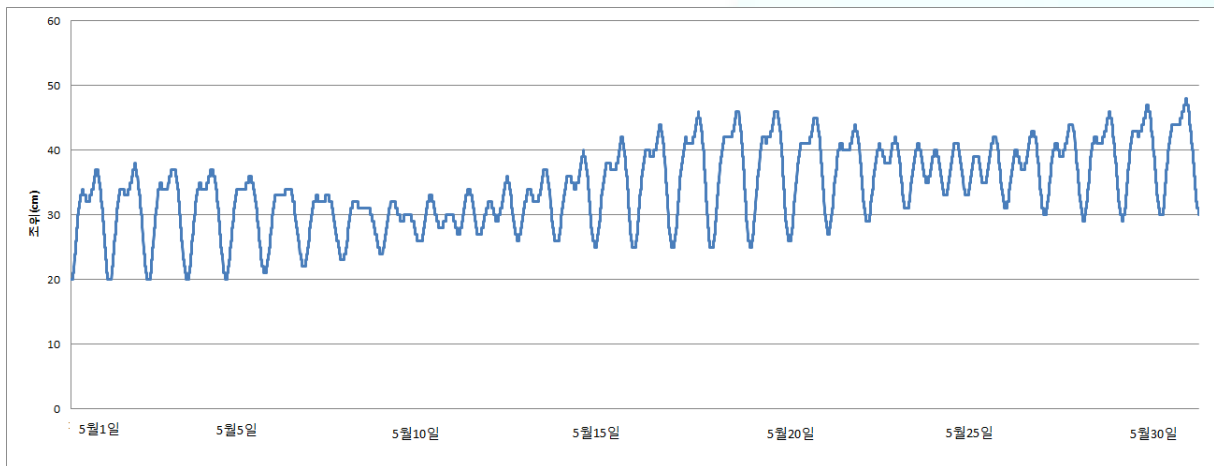


<2014년 5월 인천 조석예보>





<2014년 5월 완도 조석예보>



<2014년 5월 포항 조석예보>



## 해난사고 현황

### ★ 최근 5년간('09.1.1~'13.12.31) 현황

선박사고(선박의 충돌, 좌초, 화재, 침수, 전복 등으로 인한 피해)

- 총 7,982척(49,817명)의 선박사고 발생
- 구조현황 : 선박 7,708척(96.6%), 선원 49,330명(99.0%)
- 피해현황 : 재산피해[선박 273척(3.4%)], 인명피해[487명(1.0%) : 사망(285명), 실종(202명)]

| 구분    | 발생    |        | 구조    |        | 구조불능 |     | 인명피해 |     |
|-------|-------|--------|-------|--------|------|-----|------|-----|
|       | 척     | 명      | 척     | 명      | 척    | 명   | 사망   | 실종  |
| 계     | 7,982 | 49,817 | 7,709 | 49,330 | 273  | 487 | 285  | 202 |
| 2013년 | 1,052 | 7,963  | 1,015 | 7,896  | 37   | 67  | 48   | 19  |
| 2012년 | 1,632 | 11,302 | 1,570 | 11,217 | 62   | 85  | 64   | 21  |
| 2011년 | 1,750 | 9,503  | 1,680 | 9,418  | 70   | 85  | 38   | 47  |
| 2010년 | 1,627 | 9,997  | 1,569 | 9,844  | 58   | 153 | 85   | 68  |
| 2009년 | 1,921 | 11,052 | 1,875 | 10,955 | 46   | 97  | 50   | 4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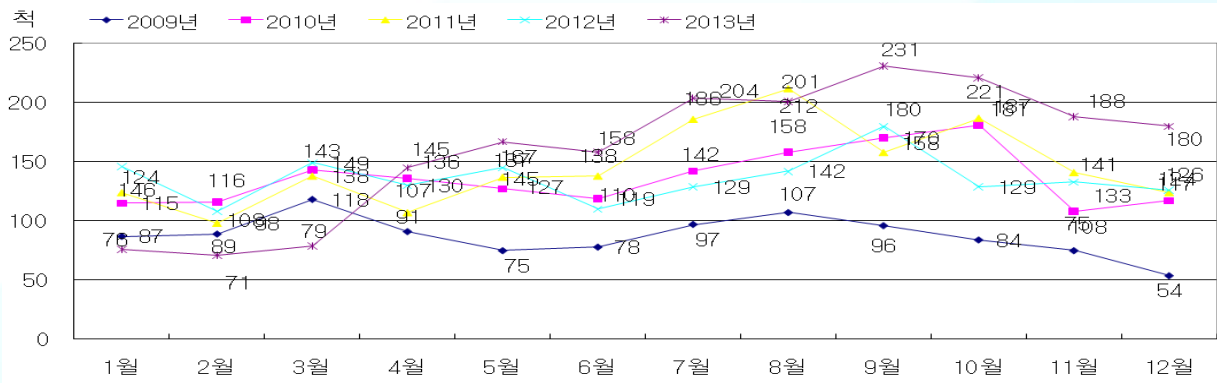


그림 6. 최근 5년('08년~'12년) 월별 선박사고 현황

### 해역별 최근 5년간 5월 중 사고발생 현황(제공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 해역별 : 서해영해 > 남해영해 > 국내항만 등의 순으로 발생
- ◆ 서해영해 : 기관손상, 충돌, 화재폭발 등의 순으로 사고 발생
- ◆ 남해영해 : 기관손상, 충돌, 좌초 등의 순으로 사고 발생

5월 사고 발생 현황

- ◆ 지난 5년간 5월에는 해양사고는 651척(연중 5번째로 적음)으로 인명피해는 26명(연중 8번째 많음) 발생, 인명피해는 충돌(6척, 35%)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음.
- ◆ 대형 인명·재산 피해가 동반되는 다중이용선박 해양사고 빈발
  - \* 행락철에 따른 유·도선 6척(연중 2번째 많음)에서 해양사고 발생



해양안전 정보

▶ 인명피해 34명으로 연중 7번째 많이 발생

해양사고는 651척(연중 5번째로 적음)으로 인명피해는 26명(연중 8번째 많음) 발생  
인명피해는 충돌(6척, 35%)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음

▶ 통영, 목포, 인천 지역에서 해양사고 빈발

5월 중에는 통영해경서 관할해역에서 87척(가장 많음), 목포해경서 77척(2번째 많음),  
인천해경서 77척(3번째 많음) 순으로 해양사고 빈발  
유형별로는 기관고장(223척), 충돌(112척), 추진기장애(68척) 등의 사고 발생

▶ 대형 인명·재산 피해가 동반되는 다중이용선박 해양사고 빈발

행락철에 따른 유·도선 6척(연중 2번째 많음)에서 해양사고 발생

▶ 해양기상 개선으로 모터보트, 요트 및 낚시어선에서 해양사고 빈발

해양기상이 점차 개선되어 레저활동이 가능함에 따라 모터보트에서 36척(연중 5번째 많음),  
요트 15척(연중 6번째 많음), 낚시어선 46척(연중 6번째 많음)으로 해양사고 빈발



## 사고 예방 정보

### ▶ 본격적인 행락철로 다수 시민이 승선한 여객선, 유·도선 안전운항

날씨가 가장 좋은 5월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이 바다를 찾음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 개연성이 높은 여객선, 유·도선 안전운항 철저

여객선, 유·도선은 출항전, 기관·선체 사전 안전점검 및 운항시 충돌 및 해상 부유물에 의한 추진기 및 타기 고장예방을 위해 견시 철저

### ▶ 본격적인 성어기로 출항전 기관 및 선체의 정밀 점검·정비 후 출항

많은 어선이 출어함에 따라 사고 개연성이 증대하므로 안전조업 철저 및 타 선박의 인지를 쉽게 하기 위해 조업, 항해등, 조업등 점등 철저

### ▶ 출어 및 조업 시 충분한 휴식으로 안개 및 졸음운항 사고 예방(견시 철저)

해상에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므로 선박간 충돌 예방 및 어망 등에 의한 추진기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졸음운항으로 인해 자칫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충분한 휴식 후 조업 또는 항해(조타실 당직자는 항상 배치)

### ▶ 1인 조업선은 안전조업을 위해 가급적 선단선 편성

해상에서 침수 등 돌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인 조업선은 필히 조업해역 및 귀항 일시 등을 선박 출입항 기관에 통보하고, 선단선 출어

상호 인지 가능한 해역에서 조업하고 해상 추락 또는 실종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동의 착용 철저

### ▶ 침수 및 충돌사고에 특히 주의

5월은 대체로 기상이 양호하여 풍랑주의보 발효 횟수가 적은 시기이나 침수사고와 충돌사고가 빈번하므로 주의

짙은 안개에 의한 해양사고가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기적 등 무중항법 준수 및 조기에 피항



**수온 동향**

★ 5월의 예상 수온

5월의 연안 수온은 동해, 서해가 1~2℃ 내외의 고온현상을 보이겠고, 남해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됨.

- 동해 : 12~18℃ 분포
- 남해 : 15~18℃ 분포
- 서해 : 14~20℃ 분포

▶ 지난달 수온 분포

4월의 연안 평균수온은 10.0~15.3℃ 범위로 분포하였음. 동해연안은 12.3~13.4℃, 남해연안은 13.5~15.3℃, 서해연안은 10.0~13.2℃의 분포를 보였음.

인공위성 자료로 분석된 한반도 주변 해역의 4월 표층 수온분포는 남해 근해역에서 12~17℃의 수온분포로 평년에 비해 1~2℃ 높게 나타났으며, 서해 근해역에서도 8~11℃의 수온분포로 평년에 비해 1~2℃ 높게 나타났으며, 동해 근해역에서는 13~15℃의 수온분포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어장 분포**

★ 5월의 어장 분포

5월에 들면 대형선망어업은 4월 중순부터 시행 중인 자율 휴어기로 인해 조업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5월 월명기가 끝나는 17일 이후부터 제주도 및 대마도 주변 해역에서 고등어, 전갱이 등을 대상으로 조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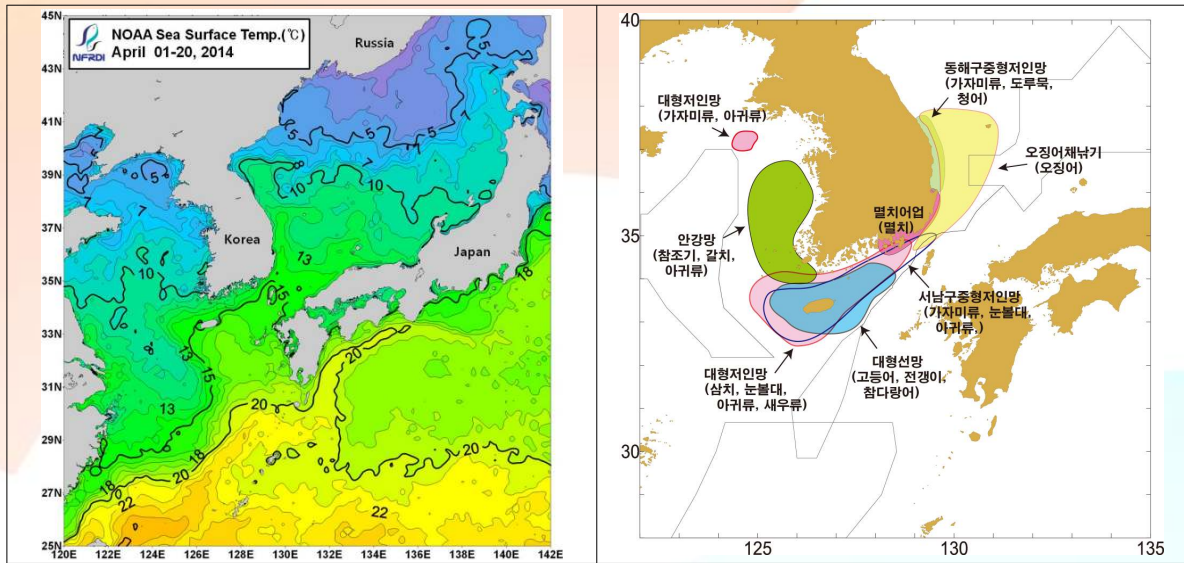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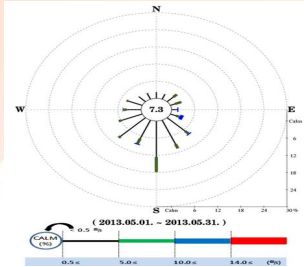
그림 7. 광역 수온 분포(위성/좌) 및 어업별 예상어장도(5월/우)

|       |   |
|-------|---|
| 고 등 어 | 고등어는 계절적인 수온의 상승과 함께 어군의 북상회유가 진행됨에 따라 제주도 주변해역에서 내유량이 점차 증가하겠으나, 대형선망어업의 자율휴어기가 5월 중순까지 지속되어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부진할 것으로 예상   |
| 살오징어  | 살오징어는 동해남부해역 및 남해동부해역에서 북상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나, 금년부터 살오징어 자원의 보호 및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신설된 살오징어 포획금지기간(4~5월)에 따라 조업은 이루어지지 않겠음. 다만 정치망어업으로 포획하는 경우는 포획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 멸 치   | 멸치 권현망어업은 금어기(4~6월)로 접어들어 조업을 하지 않겠으며, 자망어업에 의해 산란을 위해 난류세력과 함께 북상 회유하는 어군을 중심으로 남해동부의 남해도 주변해역과 동해남부의 기장 연안해역에서 활발한 봄 어기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됨. 전체적인 어황은 내유량의 증가로 평년수준의 어황이 예상  |
| 갈 치   | 갈치는 제주도~흑산도간 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적인 어군 밀도의 증가로 평년비 순조로운 어황이 예상   |
| 참 조 기 | 참조기는 서해남부 및 제주도 서부해역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나, 전체적인 어황은 어군의 남하회유로 평년비 부진할 것으로 예상  |
| 기 타   | 망치고등어는 연근해 수온 상승과 더불어 내유자원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꽂치, 명태, 갑오징어의 자원량은 여전히 낮아 어황은 저조할 것으로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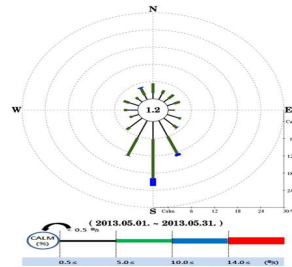
## ▶ 지난 달

4월의 주요 어종별 어황을 살펴보면 갈치, 망치고등어, 참다랑어, 멸치, 말쥐치는 평년비 순조로웠고, 고등어, 참조기, 전갱이, 살오징어는 평년비 부진함. 특히 아열대성 어류인 참다랑어는 수온 상승과 함께 북상하여 제주도 동남부해역(243, 244해구)을 중심으로 어장이 형성되었으며, 30kg이상의 대형 개체도 전체 참다랑어 어획량의 약 25%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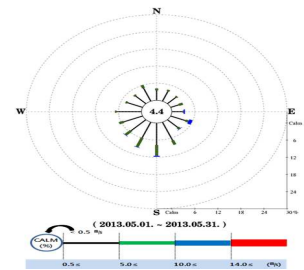
5월의 해상풍(해양기상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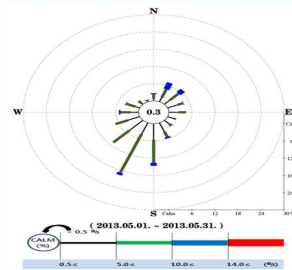
덕적도(서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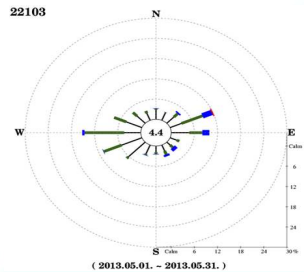
동해(동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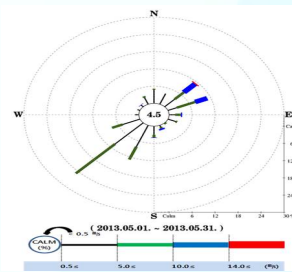
외연도(서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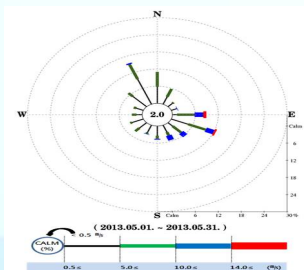
포항(동해남부면바다)



거문도(남해서부면바다)



거제도(남해동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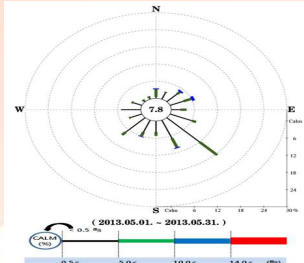
마라도(제주도면바다)

울릉도(동해중부면바다), 칠발도(서해남부면바다) 자료 수집률 80% 이하로 통계자료 미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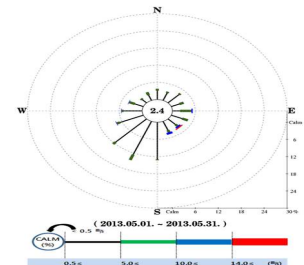
그림 8. 해양부이 관측 해상풍(13년 5월, 바람장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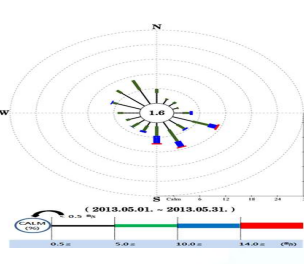
## 5월의 해상풍(등표기상관측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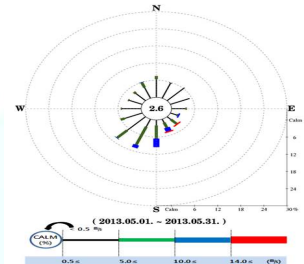
서수도(서해중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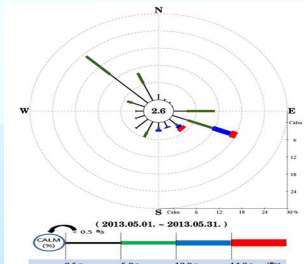
가대암(서해중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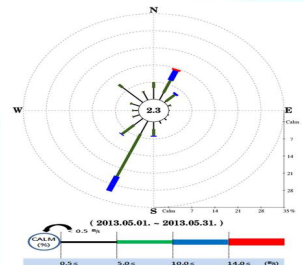
십이동파(서해남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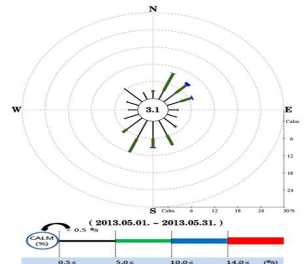
갈매여(서해남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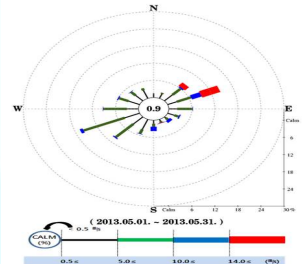
해수서(서해남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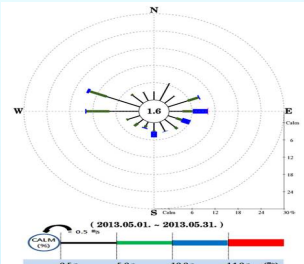
이덕서(동해남부앞바다)



광안(남해동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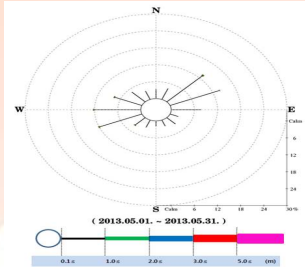
간여암(남해서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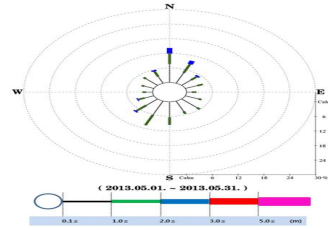
지귀도(제주도 앞바다)

그림 9. 등표기상관측장비 관측 해상풍('13년 5월, 바람장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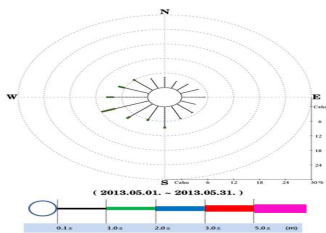
## 5월의 파향(해양기상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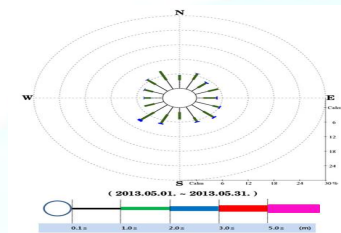
덕적도(서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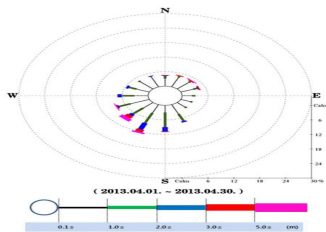
울릉도(동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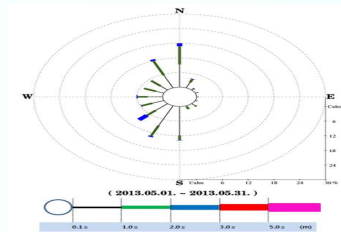
외연도(서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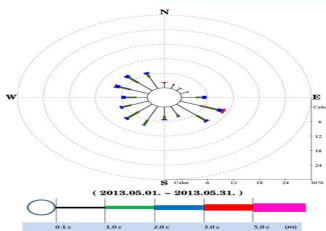
동해(동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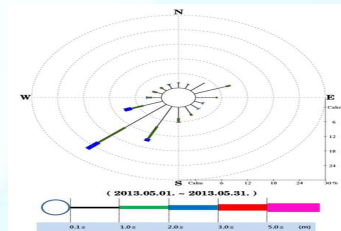
칠발도(서해남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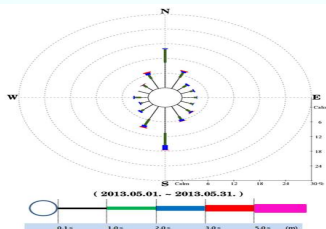
포항(동해남부면바다)



거문도(남해서부면바다)



거제도(남해동부면바다)



마라도(제주도면바다)

그림 10. 해양부이 관측 파향('13년 5월, 파향장미)

## ▶ 5월의 주요 해양사고일지

| 일시                 | 선명  | 피해                   | 사고원인  |
|--------------------|---|----------------------|---|
| '08.5.31.<br>17:10 | 원*호<br>(인천선적, 레저보트,<br>0.3톤, 승선원 4명,<br>FRP, 선령 5년)     | 사망 4<br>선체침몰         | 인천 대초지도 인근해상에서 레저활동 종료 후 귀항중,<br>기관고장으로 구조 요청후 통신두절, 원인미상 침몰<br>※ 당시기상 : 남서풍, 4~6m/s, 파고 0.5~1m, 시정 3마일                   |
| '09.5.21<br>05:00  | 선명 없음<br>(무등록 어선, 3톤,<br>승선원 3명, FRP,<br>선령 4년)         | 사망 3<br>선체침몰         | 전북 부안군 가력도항에서 신고없이 출항, 전북 군산시<br>옥도면 비안도 남방 1.5마일 해상에서 통신두절,<br>조업근해 수색결과 침몰  |
| '09.5.11<br>03:00  | 봉*호<br>(태안 외연도선적,<br>7.31톤, 승선원 3명,<br>어선, FRP, 선령 16년) | 사망 1<br>실종 1<br>선체침수 | 충남 보령시 외연도 남방 근해에서 원인미상 침수로<br>구조 요청<br>※ 당시기상 : 남동풍, 8~12m/s, 파고 2m, 시정 3마일  |
| '10.5.17<br>13:38  | 양*호<br>(통영선적, 장어 통발,<br>78톤, FRP, 승선원<br>10명, 선령 11년)   | 실종 5<br>화재           | 제주 차귀도 서방 70마일 해상에서 조업지 이동중<br>기관실에서 원인미상 화재 발생으로 5명은 구조하였으나<br>5명은 실종  |
| '10.5.4<br>16:45   | 핑*호<br>(캄보디아 국적,<br>화물선, 승선원 10명,<br>강선, 24년)           | 실종 1<br>충돌<br>선체침몰   | 울산 대변 4.5마일 해상에서 상선 2척이 충돌하여 선박은<br>침몰하였으나 인근을 항해중인 상선에서 9명 구조<br>※ 당시기상 : 남서풍, 10~12m/s, 파고 1.5m, 흐림(안개)                 |
| '12. 5. 1<br>14:40 | 2****호<br>(44톤, 부산선적,<br>예인선, 승선원 3명)                   | 침몰<br>인명피해<br>없음     | 울산 동구 주전동방 1해리 해상에서 부산에서 포항으로<br>항해중, 원인미상 침수, 침몰, 울산해경 P-02정에서<br>승선원 3명 전원 구조<br>※ 당시기상 : 북서풍, 6~8m/s, 파고 1m, 시정 2해리    |
| '12.5.27<br>09:05  | 해*호(2.96톤, 3명)<br>해*호(9.77톤, 2명)                        | 선체전복<br>인명피해<br>없음   | 서귀포 구좌읍 하도리 반대여(빨간등대) 동방 해상에서<br>투묘 낚시중 선박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 1척은<br>전복되었으나 전원 구조함<br>※ 당시기상 : 남서풍, 6~8m/s, 파고 0.5m, 시정 3마일 맑음 |



“10. 5월 선수 균열(침수)



“10. 5월 침몰(충돌)



“12. 5월 침몰(침수)